경주시, '우리놀이터 개관·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겹경사

'우리놀이터' 개관식 개최
전통놀이에 정보기술 접목
31일까지 할로윈 이벤트

6일 전통놀이 콘텐츠 설치 공간 '우리놀이터' 정식 개관을 맞아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장, 이진식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장 등이 리본 절단식을 하고 있다.

6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특별공연에서 도깨비 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경주엑스포공원에 축하할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지난 6일 '우리놀이터' 정식 개관식을 열고 상설공연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행사를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우리놀이터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통놀이 보급을 위해 지원해 제작한 전통놀이 콘텐츠를 설치한 공간이다.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이용시설 중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경주엑스포공원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이진식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장 등이 참석했다. 리본 절단식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은 우리놀이터를 돌아보며 정보기술(IT)가 접목된 전통놀이를 관람했다.

개관식 후 이어진 상설공연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풍물놀이 공연과 대금 연주 등으로 축하공연을 펼쳤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난타', '점프' 등을 연출 감독한 최철기 감독의 작품으로 10년째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상설 공연 중 논버벌 퍼포먼스다.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이동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무언어 퍼포먼스다. 리듬체조, 기계체조 등 전 국가대표 출신 배우들이 3D 영상 맵핑과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배경 위에서 로봇팔에 매달려 나는 듯 공연을 펼친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이날 10주년을 맞아 문체부와 경주시, 한화, 필라이트 등의 후원으로 야외에서 불꽃놀이와 300대의 LED드론을 배경으로 공연했다. 불꽃놀이와 LED드론이 화려한 배경을 만드는 중에 밤하늘을 걷는 듯한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놀이터 개관식 참석 후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 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놀이터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며 "인피니티 플라잉도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확 뚫어주는 듯한 공연이었는데 방역수칙 등으로 수천명이 모여 함께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31일까지 뒤편 둘레길 화랑숲을 핼러윈 테마로 꾸민 '루미나 해피 할로윈' 이벤트를 연다. 둘레길 입구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가 핼러윈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의상도 빌려준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주(경북)=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경북도, 첨단 로봇과 함께하는 과학체전 만든다

첨단로봇, 안내·홍보 전방위 활약
태권도 시연·댄스공연 등 눈길

안내로봇 크루저

현재 경북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나와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경기장인 구미 시민운동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로봇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회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서 처음으로 내빈을 맞이한 것은 안내로봇 '크루저'였다.

국내에서는 이미 용산구청, 광주시 등에서 민원안내 등으로 도입한 바 있는 로봇이다.

크루저는 내빈입장 출입문에서 발열체크, 행사 소개 후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2층 환단장 입구로 안내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기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로봇물고기 '미로'도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해 구미를 찾았다.

2018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된 모습으로 구미를 찾은 순수 국내기술 로봇물고기 미로는 시민운동장 주출입구 로비에서 육상경기를 위해 시민운동장을 찾은 선수, 임원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다.

복합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홍보관에도 다양한 로봇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LG홍보관에 설치된 서빙로봇 '클로이'와 삼성 홍보관의 최첨단 IOT시스템 등 구미를 바탕으로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한 두 기업의 수준 높은 기술은 구미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선사했다.

특히 KT 홍보관에 설치된 사족보행 로봇과 휴먼로이드로봇 '알파프로'의 태권도 시연 및 댄스공연은 한글날 연휴를 맞아 홍보관을 찾은 어린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주시, 위기 근로자 노동전환 지원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사업 등 추진

광주시 고용안정추진단이 지역 주력 산업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 관련 기업의 실직자와 이·전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성장지원, 고용서비스 등을 확대키로 했다.

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가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지원과 연관기업의 실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서비스, 이·전직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 상반기 운영 결과 지역 실직자, 구직자, 지역기업 등의 참여와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고용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남부대 산학협력단, 대한용접접합공업협회 등 8개 기관에서 하반기 사업참여자를 모집중이다.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은 고용안정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지역 의사 부족 심각… 중증응급환자 10명 중 1명 전원

김원이 의원 전남 전원율 전국 최고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원되는 사례가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5582명 중 541명(9.7%)은 타병원으로 옮겨져 전국에서 전원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전원 환자 중 263명(48.6%)은 치료할 의사가 없는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등의 이유로 조사됐다. 나머지 중증환자는 주소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등의 이유로 전원됐다.

광주는 중증응급환자 8236명 중 352명(4.3%)이 전원됐으며 병실 부족 등의 사유가 9명, 40명은 의료진 부족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응급환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만1803명의 환자 중 전원환자는 734명(3.4%)이었으며 병실부족 등의 이유가 163명,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가 116명이다.

서울은 9017명의 중증응급환자 중 546명이 전원됐으며 병실부족(255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청송군 "언택트 힐링 여행 놀러오세요"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경북 청송군이 가을꽃 향기 가득한 언택트 힐링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관광수요 대비 및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이 있는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조성했다.

파천면 용전천 일원 부지 13만6000㎡(약 4만2000평)에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화원으로 꾸며진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지난달 1일 정식 개장했다.

이후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불과 개장 한 달여 만에 4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주왕산관광단지정원과 진보객주정원도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해 황금빛 천연색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볼거리들은 청송을 방문했던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다음달에는 주왕산관광단지에 사계절 테마정원 '청송솔빛정원'이 문을 연다.

/청송(경북)=김태우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문 대통령 "안전한 수소 에너지, 전방위적 홍보 필요"
▲'화천대유' 김만배, 350억원 로비설 검찰 수사

/사진 뉴시스

▲성인 확진자 83.1%가 미접종·불완전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본격 시작

/사진 뉴시스

▲중상위권 대학 233개교, 고강도 정원 감축 돌입
▲서울시, 폐가전 재활용사업으로 온실가스 12만t 줄여